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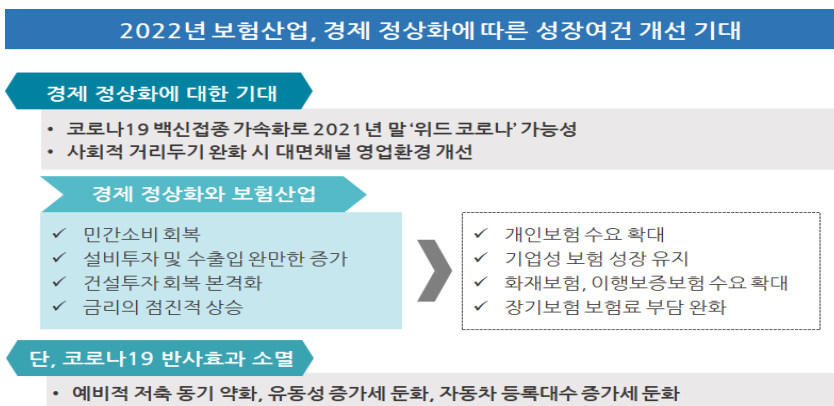
# Ⅲ 2022년 보험산업 전망

## 1.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개요

### 가. 개요

- 2022년 보험산업은 경제 정상화에 따른 보험료 성장여건 개선이 예상됨
  -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속화로 2021년 말 '위드 코로나'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,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대면채널 영업환경 개선이 기대됨
  - 경제 정상화에 따른 민간수요 회복은 개인보험 수요를 확대할 수 있으며, 설비투자 및 수출입의 완만한 증가로 기업성 보험의 성장세 유지가 예상됨
  - 건설투자 회복의 본격화는 화재보험, 이행보증보험 등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으며,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장기 보험의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됨
- 그러나 코로나19 반사효과 소멸은 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
  - 예비적 저축 동기 약화, 유동성 증가세 둔화,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등은 관련 보험상품 수요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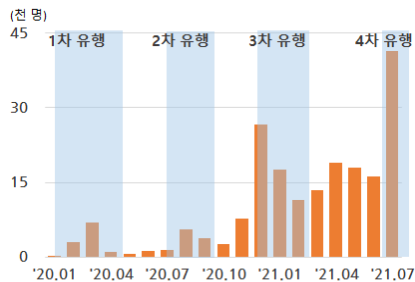
〈그림 Ⅲ-1〉 보험료 전망 개요



○ 2022년 전망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종식 여부와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 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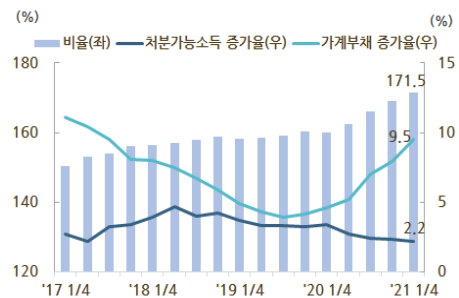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,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코로나19의 종식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임(그림 III-2) 참조)
-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가 급격한 조정을 보이며 경착륙 할 경우 소비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
  - 최근 처분가능소득 증가에 비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부채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(그림 III-3) 참조)

〈그림 III-2〉 코로나19 월별 확진자 수 추이



자료: 질병관리청

〈그림 III-3〉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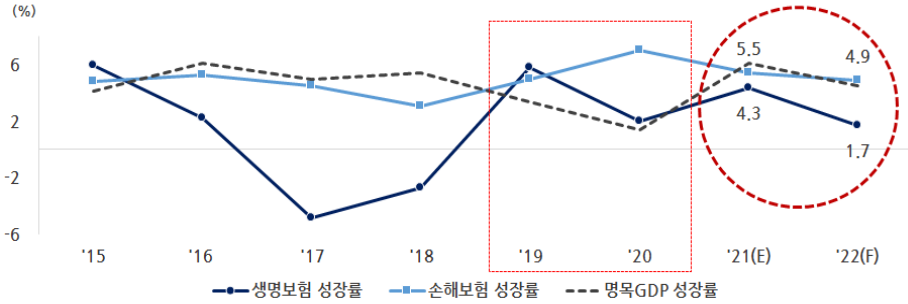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『금융안정보고서』

## 나. 전체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

○ 2021~2022년 보험산업은 2020년 이례적인 성장세에서 벗어나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

-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명목경제 성장률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
- 그러나 2020년 보험산업의 이례적인 보험료 성장세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이 커 보이며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
- 구체적으로, 2022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명목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이 전망되며,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전망됨

〈그림 III-4〉 2022년 수입보험료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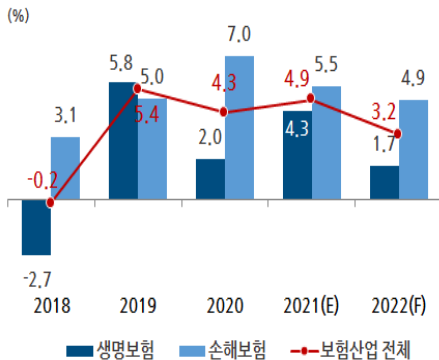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,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○ 2022년 보험산업 전체 수입(원수)보험료는 전년 대비 3.2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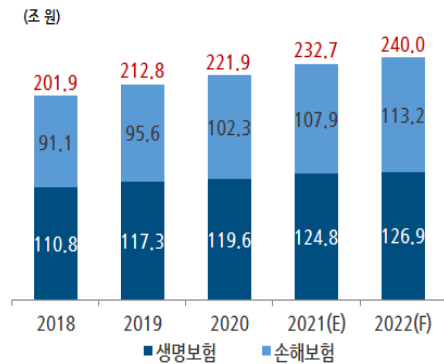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21년 4.3%에서 2022년 1.7%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
-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21년 5.5%에서 2022년 4.9%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
- 한편, 2022년 보험산업 수입(원수)보험료 규모는 240조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

〈그림 III-5〉 보험료 증가율 전망

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III-6〉 보험료 규모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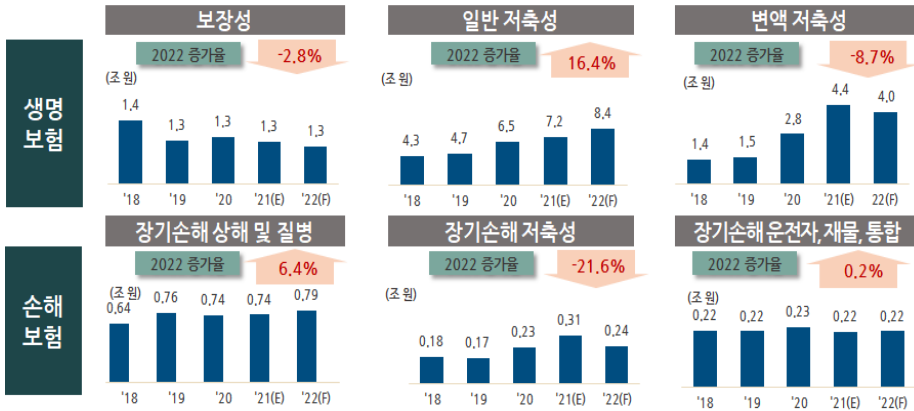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## 다. 보험산업 초회보험료

- 생명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,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, 일반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증가할 전망이다
  -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종신보험 수요 약화로 완만한 감소세가 전망됨
  - 일반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2012년 급증한 일시납 보험의 만기도래 후 재가입 수요로 증가가 전망됨
  -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021년 신규가입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가 전망되나 투자 수요 확대로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
- 손해보험의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건강보장 수요 확대로 소폭 증가가 예상됨

〈그림 III-7〉 종목별 초회보험료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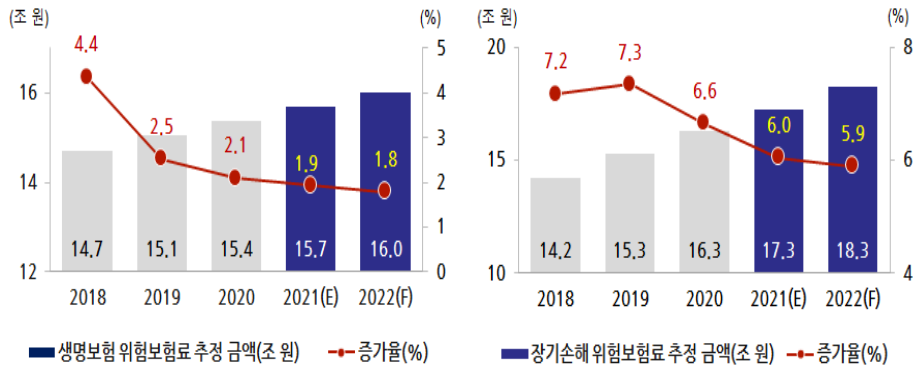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## 라. 보험산업 위험보험료

- 2023년 IFRS17 도입 시 보험회사의 주요매출은 수입보험료가 아닌 위험보험료로 인식되기 때문에 과거 위험보험료 성장성을 토대로 한 2022년 위험보험료 전망을 시행함
- 위험보험료 기준으로 추정된 2022년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보험의 성장률은 각각 1.8%, 5.9%로 수입(원수)보험료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

- 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위험보험료 비중이 높은 보장성보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
- 그러나 2018년 이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위험보험료 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음

〈그림 III-8〉 생명보험 위험보험료 추정 및 전망 〈그림 III-9〉 장기 손해보험 위험보험료 추정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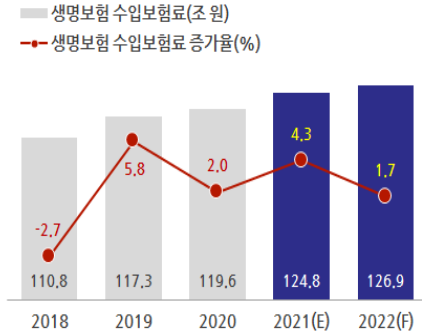


## 2. 생명보험

### 가.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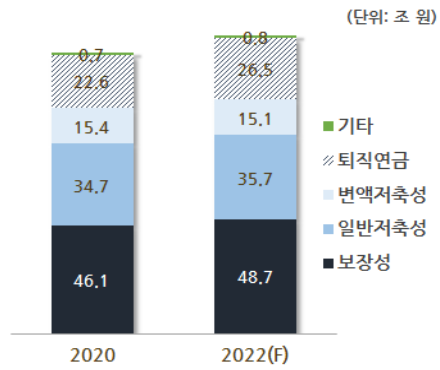
- 2022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질병·건강보험 성장, 저축보험 만기 보험금 재유입 등으로 전년 대비 1.7% 증가할 전망임
  -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성장둔화 불구하고 질병 및 건강보험 수요 확대에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
  - 일반저축성보험은 상대적인 금리 경쟁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나, 저축보험 만기 보험금 재유입 효과 등으로 성장이 예상됨
  - 변액저축성보험은 직접투자 선호로 인해 계속보험료 감소가 지속되면서 수입보험료가 감소할 전망임

〈그림 III-10〉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전망

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III-11〉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규모 전망

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표 III-1〉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: 조 원, %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| 2019  |      | 2020  |      | 2021(E) <sup>1)</sup> |      | 2022(F) <sup>1)</sup>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료   | 증가율  | 보험료   | 증가율  | 보험료                   | 증가율  | 보험료                   | 증가율  |
| 생명보험 전체<br>(퇴직연금 제외) | 92.6  | -1.4 | 97.0  | 4.8  | 98.8                  | 1.8  | 100.4                 | 1.5  |
| 보장성보험 <sup>2)</sup>  | 44.4  | 3.9  | 46.1  | 3.8  | 47.4                  | 2.8  | 48.7                  | 2.7  |
| 저축성보험 <sup>3)</sup>  | 47.4  | -6.0 | 50.1  | 5.8  | 50.6                  | 1.0  | 50.9                  | 0.4  |
| 일반저축성                | 31.6  | -5.7 | 34.7  | 9.8  | 34.8                  | 0.1  | 35.7                  | 2.8  |
| 변액저축성                | 15.8  | -6.5 | 15.4  | -2.3 | 15.9                  | 3.1  | 15.1                  | -4.7 |
| 기타 <sup>4)</sup>     | 0.8   | 0.6  | 0.7   | -2.1 | 0.8                   | 0.7  | 0.8                   | 0.4  |
| 퇴직연금                 | 24.6  | 46.0 | 22.6  | -8.5 | 26.0                  | 15.1 | 26.5                  | 2.2  |
| 생명보험 전체<br>(퇴직연금 포함) | 117.3 | 5.8  | 119.6 | 2.0  | 124.8                 | 4.3  | 126.9                 | 1.7  |

주: 1) 보험연구원 추정치(E) 및 전망치(F)임

2)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, CI, 건강보험, 변액종신보험 등을 포함함

3) 저축성보험에는 일반저축성(생존보험·생사혼합보험)과 변액저축성(변액연금·변액유니버설)을 포함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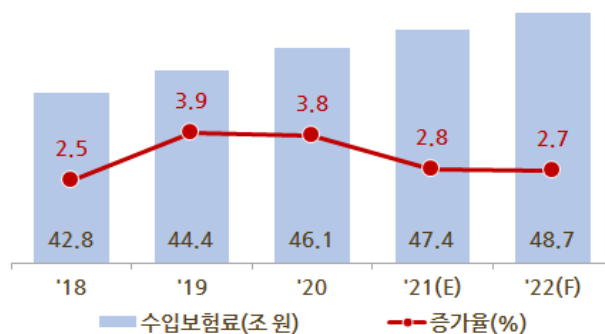
4)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을 포함함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## 나. 보장성보험<sup>5)</sup>

- 보장성보험은 경제 정상화에 따른 수요 회복이 예상되나 종신보험 신상품 개발 위축으로 종신보험 성장성이 약화되면서 질병·건강보험 중심의 2.7% 성장이 전망됨
  - 경제 정상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대면채널 영업환경 개선은 보장성보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
  - 또한, IFRS17과 K-ICS 시행을 앞두고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보장성보험 확대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  - 그러나 종신보험 신상품 개발 위축으로 종신보험 성장성이 약화되면서 질병·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될 것임

〈그림 III-12〉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

주: 보험연구원 추정치(E) 및 전망치(F)임  
 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## 다. 일반저축성보험<sup>6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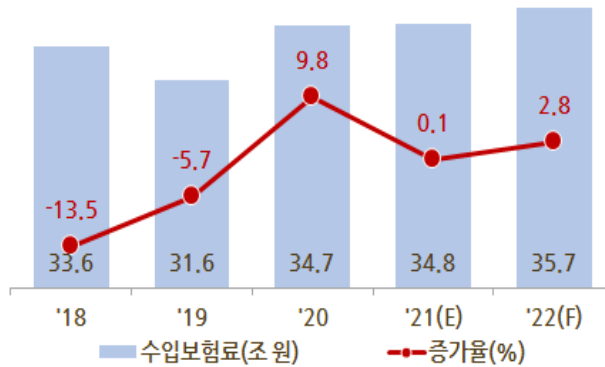
- 일반저축성보험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상대적인 금리 경쟁력은 약화되었으나, 2012년 급증했던 일시납 보험료의 만기 후 재가입 효과로 2.8% 증가가 전망됨
  - 시중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저축성보험의 상대적인 금리 경쟁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

5)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·CI·건강보험·변액종신보험을 포함함

6) 일반저축성보험은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을 포함함

- 그러나 기존에 판매된 저축보험 만기 보험금 중 일부가 재유입되어 저축성보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
  - 2012년 7월 저축성보험의 세제요건이 강화되면서 2012년 일반저축성보험 수입 보험료는 전년에 비하여 25.6조 원 증가하여 85.0% 성장한 바 있으며, 이 가운데 유지되고 있는 대부분 계약이 2022년에 10년 만기가 도래함
- 한편, 연금보험의 경우 IRP와 같은 투자형 상품과의 경쟁심화로 지속적인 위축이 전망됨

〈그림 III-13〉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

주: 보험연구원 추정치(E) 및 전망치(F)임  
 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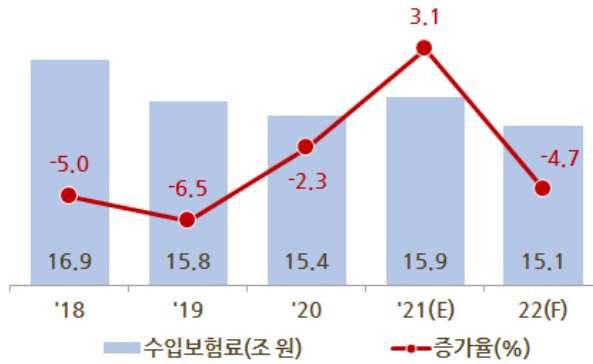
## 라. 변액저축성보험<sup>7)</sup>

- 변액저축성보험은 투자상품 선호 확대로 신규 판매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, 기존 계약의 유출로 인해 전년 대비 4.7% 감소가 전망됨
  -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투자상품에 대한 인식 개선은 투자형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확대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
  - 그러나 기존 계약의 이탈은 지속되고 있으며, 변액보험의 주식시장 민감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

7) 변액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을 포함함



〈그림 Ⅲ-14〉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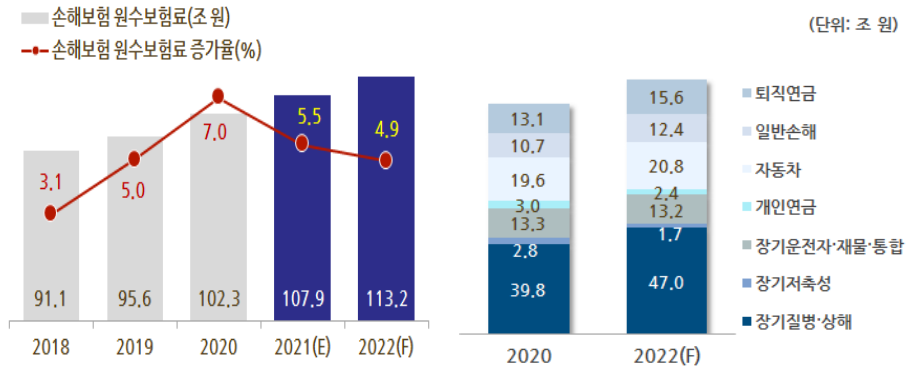
주: 보험연구원 추정치(E) 및 전망치(F)임  
 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### 3. 손해보험

#### 가. 개요

- 2022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전년 대비 4.9% 증가가 전망됨
  - 장기 손해보험은 질병 및 상해보험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5%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
  - 자동차보험은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소멸과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채널 확대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전망됨
  - 일반손해보험은 책임보험시장 확대와 신규 리스크 담보 확대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

〈그림 Ⅲ-15〉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〈그림 Ⅲ-16〉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규모 전망



주: 보험연구원 추정치(E) 및 전망치(F)임  
 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주: 보험연구원 전망치(F)임  
 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표 Ⅲ-2〉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

(단위: 조 원, %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| 2019 |      | 2020  |      | 2021(E) <sup>1)</sup> |       | 2022(F) <sup>1)</sup>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료  | 증가율  | 보험료   | 증가율  | 보험료                   | 증가율   | 보험료                   | 증가율  |
| 손해보험 전체<br>(퇴직연금 제외 시) | 83.8 | 4.4  | 89.2  | 6.4  | 93.4                  | 4.7   | 97.5                  | 4.4  |
| 장기 손해보험                | 53.1 | 5.0  | 55.9  | 5.3  | 58.9                  | 5.3   | 61.9                  | 5.2  |
| 개인연금                   | 3.3  | -6.4 | 3.0   | -9.1 | 2.6                   | -11.6 | 2.4                   | -9.5 |
| 자동차보험                  | 17.6 | 5.1  | 19.6  | 11.6 | 20.4                  | 4.0   | 20.8                  | 2.1  |
| 일반손해보험                 | 9.9  | 3.9  | 10.7  | 8.3  | 11.5                  | 7.9   | 12.4                  | 7.5  |
| 퇴직연금                   | 11.8 | 9.3  | 13.1  | 11.4 | 14.5                  | 10.4  | 15.6                  | 8.0  |
| 손해보험 전체<br>(퇴직연금 포함 시) | 95.6 | 5.0  | 102.3 | 7.0  | 107.9                 | 5.5   | 113.2                 | 4.9  |

주: 1) 보험연구원 추정치(E) 및 전망치(F)임  
 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## 나. 장기 손해보험

- 2022년 장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질병·상해·운전자보험의 고성장이 계속되면서 전년 대비 5.2% 증가가 전망됨

〈표 Ⅲ-3〉 장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

(단위: 조 원, %)

| 구분        | 2019 |       | 2020 |       | 2021(E) <sup>1)</sup> |       | 2022(F) <sup>1)</sup> |       |
|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          | 보험료  | 증가율   | 보험료  | 증가율   | 보험료                   | 증가율   | 보험료                   | 증가율   |
| 장기 손해보험   | 53.1 | 5.0   | 55.9 | 5.3   | 58.9                  | 5.3   | 61.9                  | 5.2   |
| 질병 및 상해보험 | 36.2 | 10.9  | 39.8 | 10.1  | 43.4                  | 9.0   | 47.0                  | 8.3   |
| 저축성보험     | 3.4  | -23.7 | 2.8  | -20.0 | 2.2                   | -20.5 | 1.7                   | -21.4 |
| 운전자·재물 등  | 13.5 | 0.3   | 13.3 | -1.0  | 13.2                  | -0.7  | 13.2                  | -0.5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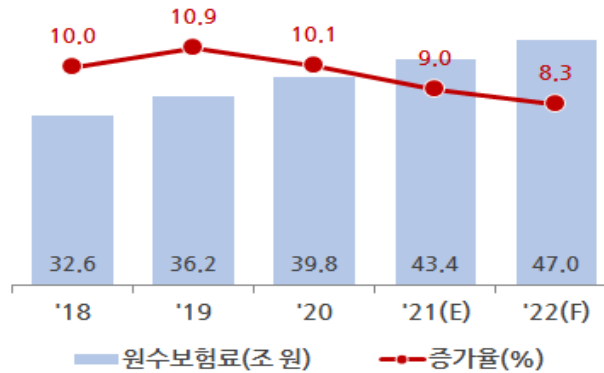
주: 1) 보험연구원 추정치(E) 및 전망치(F)임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○ 장기 보장성보험 중 질병·상해보험은 8.3% 증가가 전망되나, 증가율은 이전에 비하여 둔화될 것임

- 질병·상해보험은 보장 확대 경쟁이 완화되면서 초회보험료 유입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, 갱신보험료 증가에 의한 계속보험료 중심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됨

〈그림 Ⅲ-17〉 장기 질병·상해 원수보험료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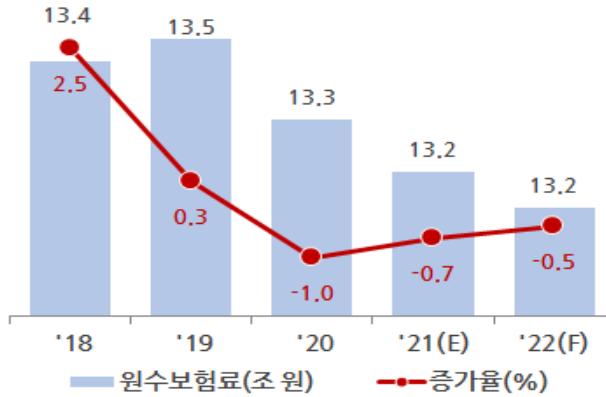
주: 보험연구원 추정치(E) 및 전망치(F)임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○ 장기 보장성보험 중 운전자·재물·통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0.5%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

-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배상책임 강화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, 재물보험과 통합보험은 신규 판매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

〈그림 III-18〉 장기 운전자·재물·통합 원수보험료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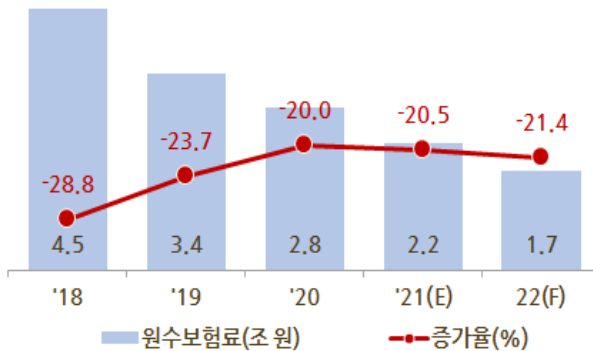


주: 보험연구원 추정치(E) 및 전망치(F)임  
 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- 장기 저축성보험은 전년 대비 21.4% 감소하여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

- 손해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저축성보험 규모는 감소하고 있음

〈그림 III-19〉 장기 저축성 원수보험료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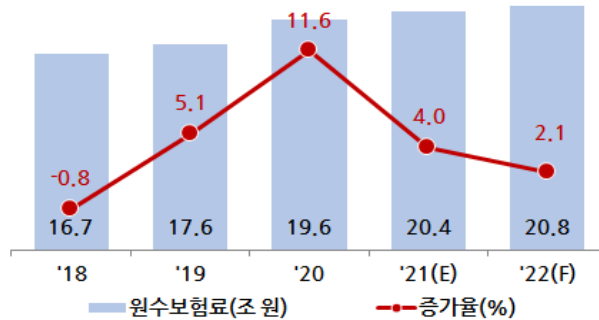


주: 보험연구원 추정치(E) 및 전망치(F)임  
 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## 다. 자동차보험

-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와 온라인 채널 확대 등으로 2.1%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
  - 2020년 2월 보험료 인상 효과는 2021년부터 소멸되고 있으며, 현재 2022년 보험료 조정의 가능성은 낮은 상황임
  - 한시적으로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,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도 둔화될 전망이다
  -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채널 및 운행거리 연동 보험 확대 등으로 인해 대당 보험료 증가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

〈그림 III-20〉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



주: 보험연구원 추정치(E) 및 전망치(F)임  
 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## 라. 일반손해보험

-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7.5%의 양호한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
  - 화재보험은 주택 화재보험의 수요 증가로 인해 2.3% 증가가 예상됨
  - 해상보험은 수·출입 물동량 확대와 조선수주 증가 등으로 0.2% 증가가 전망됨
  - 보증보험은 건설투자 회복과 신용 관련 보증 수요 확대로 3.2% 성장이 예상되나 증가세는 이전에 비하여 둔화될 것임

- 특종보험은 책임보험시장 확대와 농산물재해보험, 종합보험, 기타특종 등의 신규 담보 확대로 9.4%의 고성장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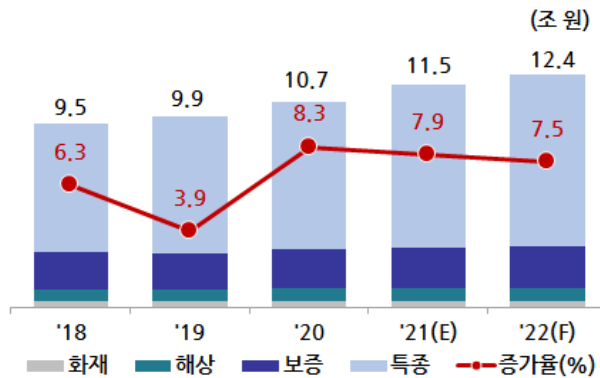
〈표 III-4〉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

(단위: 조 원, %)

| 구분     | 2019 |      | 2020 |      | 2021(E) <sup>1)</sup> |      | 2022(F) <sup>1)</sup> |     |
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       | 보험료  | 증가율  | 보험료  | 증가율  | 보험료                   | 증가율  | 보험료                   | 증가율 |
| 일반손해보험 | 9.9  | 3.9  | 10.7 | 8.3  | 11.5                  | 7.9  | 12.4                  | 7.5 |
| 화재     | 0.3  | -1.2 | 0.3  | 1.6  | 0.3                   | 9.5  | 0.3                   | 2.3 |
| 해상     | 0.6  | 0.8  | 0.7  | 17.4 | 0.7                   | -3.1 | 0.7                   | 0.2 |
| 보증     | 1.9  | -1.0 | 2.0  | 5.0  | 2.1                   | 3.8  | 2.2                   | 3.2 |
| 특종     | 7.0  | 5.9  | 7.7  | 8.7  | 8.4                   | 9.9  | 9.2                   | 9.4 |

주: 1) 보험연구원 추정치(E) 및 전망치(F)임  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III-21〉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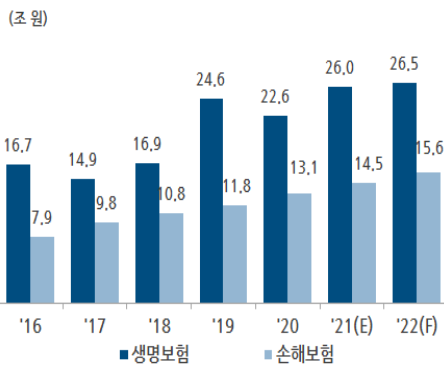
주: 보험연구원 추정치(E) 및 전망치(F)임  
 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#### 4. 보험권 퇴직연금

○ 2022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이 2.2%(26.5조 원), 손해보험이 8.0% (15.6조 원) 증가할 전망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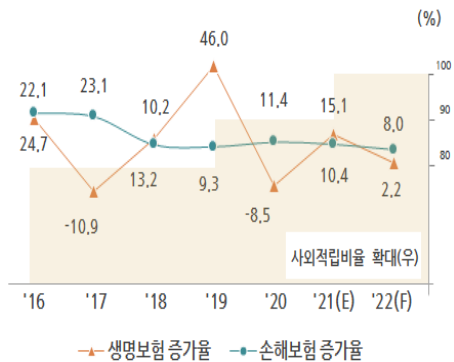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은 2021년 DB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확대가 마무리<sup>8)</sup>되면서 2022년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
- 손해보험은 퇴직연금 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보험료 중심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
- 특히, IRP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에 대한 요구자본 부담, 경기 둔화에 따른 신규고용 감소 및 임금상승률 둔화, 금융업권 간 경쟁 확대 등과 같은 보험료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들도 존재함
- 한편, 퇴직연금은 대부분 보험료가 12월 일시적으로 유입되므로 전망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

〈그림 III-22〉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



주: 보험연구원 추정치(E) 및 전망치(F)임  
 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III-23〉 사외적립비율 확대 및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



주: 보험연구원 추정치(E) 및 전망치(F)임  
 자료: 금융감독원

8) DB형 퇴직연금의 사외적립비율은 단계적으로 조정되었으며, 2021년 말 100%로 확대됨